

가족이 함께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까요?



가족 사이의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요즘, 모처럼 밥 한 끼 같이 먹어도 말없이 TV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일도 많은데요, 이럴 때 가족 모두 함께 즐기는 취미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무엇인가 같이 하다 보면 함께 있는 시간도 저절로 많아지고 가족 사이도 더 화목해지지 않을까요?
그러나 부모 자녀 간에 눈높이를 두루 맞춘 취미 찾기도 쉽지는 않습니다. 가을 야구 시즌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경기 응원도 해보고, 경기를 전후로 야구 관련 이야기꽃을 피워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도 가족이 함께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취미 생활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
무엇보다 우리 가족의 취향과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적절한 취미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

■ 목공

작은 도마나 연필꽃이에서 시작하여 온 가족이 힘을 합치면 식탁, 자동차, 새 집, 의자, 목마 등 다양한 품목을 만들 수 있고 직접 만든 물건을 가정에서 사용하면 좋겠죠?

■ 조립식 블록완구

레고로 통칭 되는 블록 완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할 수 있고 수준에 맞는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

■ 베이킹, 요리

간단한 쿠키에서부터 각종 빵이나 케이크까지 무궁무진한 종류의 베이킹을 한 가지씩 함께 하다 보면 손수 만든 케이크로 함께 기념할 만한 특별 일을 만들고 싶어지지 않을까요?

■ 스포츠

전문 교육을 받으면 더욱 좋겠지만 여건이 어렵다면 전문 교육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함께 배드민턴이나 자전거 타기, 캐치볼 등의 간단한 운동을 함께 하면 건강도 지키고 가족의 화합도 다질 수 있습니다.

■ 사진 찍기

순간을 기억하는 최고의 수단은 사진입니다. 기쁜 순간, 예쁜 순간, 멋진 순간, 재미있는 순간 등 모든 순간을 담고 기억할 수 있는 사진은 누구나 좋아할 텐데요, 가족들이 함께 주제를 정하고 사진을 찍으며 공유하면 추억거리가 몇 배로 늘지 않을까요?

■ 캠핑 집 안에서의 오랜 생활에 익숙해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캠핑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? 계절별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껴보고 자연의 동, 식물을 조금 더 가까이 보다 보면 생태교육도 이루어지겠죠? 캠핑 후 간단한 주변 청소까지 함께하면 환경교육도 가능합니다.

